

총선 끝...전기·가스요금 인상 '꿈틀'

내달 1일자 도시가스 요금 공급비 조정 정부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 줄곧 거론

4·10 총선의 막이 내리면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등으로 인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관련 논의는 사실상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였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부문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국제연료 가격,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시기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전력·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5월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를,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1일 조정하게 돼 있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자로 조정된다. 따라서 절차상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을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 내 협의가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5월 이후 동결해온 가스요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적지 않다. 우선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지난해 말 13조7천억원으로 불어난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일종의 '의상값'으로 정부에 기록해 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이를 판



정부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국제연료 가격, 경기 등을 고려해 인상 여부와 시기 판단에 고심중이다. 사진은 전력계량기.

매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가스공사가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순손실은 연결 기준 7천474억원으로, 미수금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 규모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금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11월에는 물가 상승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적자가 누적돼온 탓에 한전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202조원에 달한다. 한전은 그동안 한전재 발행 등으로 재정을 틀어막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말도 나온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줄곧 거론해왔다. 이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수 프리미엄 중심지 新 주거타운 들어선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견본주택 개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우수한 상품성 지역 수요자 기대 22일 특별공급...23일 1순위·24일 2순위 청약 진행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조감도)가 최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22번지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천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전남 개발공사와 현대건설이 함께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국내 아파트 대표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의 우수한 상품성을 누릴 수 있어 지역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위치...신흥 주거타운 탈바꿈>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조성돼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죽림1지구는 약 88만6천㎡ 규모에 공동주택, 학교, 근린공원, 문화·상업시설 등이 계획돼 있다. 4천901가구와 함께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며, 앞서 개발된 죽림2지구와 함께 약 9천가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여수신단 및 시청 직주근접 입지> 다양한 일자리가 모여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편의, 교육, 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죽림2지구에 조성된 상권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으며 롯데마트 여천점 등 쇼핑 편의시설과 여천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등 의료시설이 용이 편리하다. /임재만 기자

◇우수한 상품 적용,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조성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브랜드로서 브랜드 프리미엄 및 차별화된 상품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힐스테이트는 2023 부동산R114 한국리서치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위, 한국표준협회 2023 프리미엄 브랜드지수 공동주택 부문 1위/스마트홈서비스 부문 1위, 2023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공동주택 부문 1위 등 다수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 가치에 걸맞게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우수한 상품설계를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2일 특별공급, 23일 1순위 청약접수> 청약 일정은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로 진행된다. 특별공급의 경우 올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본 요건 완화(3명→2명) 등 다양한 정책이 반영돼 더욱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당첨자 발표는 ▲A4블록 공공 5월2일 ▲A2블록 공공 3일 ▲A2블록 민영 7일이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여수 및 전남(광주 포함) 거주,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여수 및 전남(광주 포함)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된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의 견본주택은 여수시 웅천동 1802-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7년 예정이다. /임재만 기자

에스오에스랩, 코스닥 상장 본격 돌입

광주시 'G-유니콘 육성기업'...예비 심사 승인 통과 북미지역 실증 등 지원효과 '뚜렷'...내달 기업 선정

광주시의 'G-유니콘 육성기업' 가운데 한 곳인 '에스오에스랩'이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통과해 상장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광주시는 14일 "지난해 'G-유니콘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에스오에스랩'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 금융

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G-유니콘 육성사업'은 광주시가 지역 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기업을 선발해 투자·관료 지원 등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창업 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G-유니콘 기업 선정 경진대

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에스오에스랩은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인 글로벌(북미) 실증(PoC)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시애틀 수요기업(메트볼라)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또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대기업 개방형 혁신 전략(오픈이노베이션) 등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규모 확대에 힘썼다. 이와 함께 지역 투자 기관인 광주연합기술지주와 전남대 기술지주가 운용하는 창업 펀드의 투자를 받았다. 상장 전 자본투자(Pre-IPO) 단계부터 순조

롭게 상장 준비를 마쳤고,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확정됐다. 에스오에스랩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라이더(LiDAR) 기술 특허를 보유한 지역 기업이다. 자율주행차용 '라이더(LiDAR)' 기업 최초로 코스닥 상장이라는 목표에 도전, 2020년 9월 박셀바이오 이후 3년6개월만에 지역 기업의 코스닥 예비 심사 승인 확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G-유니콘 육성사업이 지역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강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상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훈훈한 정이 있는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 8일로 끝나는 날

맛과 멋이 어우러진 능주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5, 10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화순군 Hwasun-gun

문의 : 062)650-2099